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新인구정책 패러다임 '전북사랑 도민 제도'

### '체류인구까지 확대' 전북도, 조례 제정... 광역지자체 최초 추진

전북도가 지역의 응원군으로 '함께 인구 개념을 도입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전북사랑 도민 제도'라는 새로운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는 출향도민, 지역 연구자 등 전북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는 사람에게 도민증 발급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도내 주소지가 없더라도 지역을 응원하고 교류하는 '함께인구' 개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장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이동인구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조례에는 전북사랑도민증(이하 사랑도민증) 발급요건, 지원혜택 등 제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았다. '전북사랑도민'이란 전북을 제외한 타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전북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하며,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사람으로 도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발급대상은 ▲전북도 출향도민, ▲지

장, 교육, 군복무 등 지역 연구자, ▲정책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연구자다.

또한, 오는 2023년 1월 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자도 발급대상자에 포함해 기부제도와의 연계 기반도 마련했다.

사랑도민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도민증 발급할 때 기본혜택을 지급하고, 이후 교류 활동 우수자에 대한 선별혜택도 지급한다.

기본혜택은 도 및 14개 시·군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귀농귀촌·관광 등 도정 소식지 제공, 투어패스 1일권 지급이다.

선별혜택으로는 전북방문·소비 및 SNS 홍보 등 교류활동 실적에 따라, 투어패스 2일권과 도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5만원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향후 시·군,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관광지, 숙박·식당 등 주요 시설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민증 신청·발급, 정보제공 등을 위해 누리집 구축, 제도 홍보 및 추가 혜택을 발굴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도

민증 접수·발급 등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사랑도민 제도가 거주인구보다 많은 체류인구 등 유동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주민등록 인구는 178만 명 수준이나, 관광 체류인구의 경우 2019년 기준 3,800만 명·출향도민은 189만 명 규모로 거주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에 발의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에도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돼 거주인구와는 다른 유동인구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북사랑도민제도는 정부보다 앞선 유동인구 유입정책으로, 타 지자체의 선도사례로 주목받을 만한 제도이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본격 시행될 전북사랑도민 제도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북 사랑도민 제도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향후 귀농귀촌 등 장래인구의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따뜻한 설 명절 되기를"... 농협은행 전북본부, 쌀 전달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좌) 장경민 NH농협은행 전북영업본부장,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설맞이 사랑의 쌀 350포(1포 10KG)를 기탁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설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 내년 예산 확보 행보, 예년보다 빨라지게

### 전북도, 3월 대선 이후 국정 기조 변화 예상 따라

### 신원식 정무부지사, 산업부 에너지산업실 등 찾아

### 친환경·스마트화 산업 생태계 구축 관련 현안 건의

전북도가 2023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위해 지휘부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는 주력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스마트화를 통한 산업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도는 3월 대선 이후 국정 기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록 연초지만 사업에 대한 논리를 설명하기 적절한 시기로 판단했다.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지난 17일에 산업부 산업정책실을 방문한 데 이어, 24일 에너지산업실을 방문해 미래먹거리 신성장 및 대형사업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재검토를 이어갔다.

지난 17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을 방문해 친환경·미래형 선박 보급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사업의 산업부 주도 예산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운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용차의

수소전기상용차 기반 구축을 위한 수소소용차 핵심부품 및 전용플랫폼 고도화 연구센터 구축사업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지정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세부사업 추진 시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24일 에너지산업실을 방문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345KV 송·변전설비 건설공사 사업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했다.

이 사업은 새만금의 수상태양광(1.2GW) 발전설비로부터 생산된 친환경 전력 에너지를 345KV 한전 계통에 연계해 오는 2024년 하반기 내 전력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여타 진행 중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의 법적 제도적 여건 마련을 위한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원과 '서남권 해상풍력 집중화단지 지정'에 따른 REC 수익에

대해 지역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도 요청했다.

한편, 도는 부처 단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설 명절 이후, 지휘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3월 말 기재부의 부처별 예산 한도액 배분 이전까지, 도 지휘부는 각 부처 핵심인사 대상 중점사업 사전설명 활동으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각 실국에서는 도 국가예산사업들이 정부의 중기사업계획서에 담길 수 있도록 부처 및 기재부 사무관 등 실무자를 공략한다.

또한, 올해 새로이 발굴된 신규사업은 중앙부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 등 정교한 논리를 지속 개발·보강한다.

3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방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5월 부처예산안 확정 이전까지 새로운 국정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사업 발굴도 이어갈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산업생태계 변화상' 홍보에 집중

### 도 대외협력국, 올해 9개 분야 21개 실행과제 추진

전북도 대외협력국이 2022년 새해 목표를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대외협력 구현'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대외협력국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의·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소통·협력 관계 구축, ▲경제협력과 일상회복의 희망을 공감하는 열린 홍보, ▲국제 교류협력 다변화 및 함께하는 다문

화사회 조성 등 3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9개분야, 21개 실행과제를 충실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신,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변화될 정부정책 및 정치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협의회 화사회회 개최 정착 등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2년 올해 한해 도정 홍보 주요 테마와 메시지를 '경제협력

신성장 전북대도약'으로 설정했다.

특히, 올 한 해는 친환경 스마트화를 중심으로 한 전북도의 산업생태계 변화상(체질 개선)과 경제협력 추진동력 확보상황 홍보에 집중하고, 유튜브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해 전달력과 호감도를 높이는 데 전념할 방침이다.

한민회 도 대외협력국장은 "올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장수물 MALL JANGSU MALL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NAVER 장수물 www.장수물.com